

광주시교육청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교육주간' 운영

'평화가 온다' 슬로건...15일까지 다양한 기념 행사 장휘국 교육감 "한반도 공동 번영 위해 묵묵히 소임"

광주시교육청이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평화가 온다'를 슬로건으로 학교별 특색에 맞는 계기교육 실시를 위한 기념 교육주간(6월8~15일)을 운영한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학교급별 계기교육 자료 제공, 평화통일교육 특강, 기념 현수막 게시, SNS를 이용한 '평화가 온다' 챌린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의 흥미롭게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통일카드 보드게임을 개발했고, 관내 초·중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통일카드 보드게임은 4명이 한 모둠이 대 총 8모둠(32명)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꾸러미 박스로 제공돼 분단 및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한민족의 역사와 북한 바로알기 등을 퀴즈와 주사위 게임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광주통일관의 협조를 통해 오는 11~15일 시교육청 1층 로비에서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 6·15, 4·27, 9·19 등 3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장면 및 북한 생활상 관련 각종 물품 등을 선보인다.

장휘국 교육감은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듯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광주교육은 6·15정신을 계승하고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 공동 번영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하반기 코로나19 상황 및 남북관계를 주시하면서 평화통일 수업 지원, 평화통일 교육박람회, 평화통일 체험행사, 교원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육 분야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인호 기자



"지역 선취업·후학습 체계 구축" 조선대, 지역 100개기업과 협약

미래사회융합대학 산·학교류회 성료

광주 유일 평생학습 거점대학인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이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해 '100인 가족기업 초청 MOU 체결 및 산학협력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지역사회 산·학간 연계를 통한 선취업 활성화로 고용 및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의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9일 오후 5시 광주 라페스타웨딩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조선대 민영돈 총장과 김중경 미래사회융합대학장, 광주·전남 권 기업체 관계자 등 119명이 참석했다.

발전기금 기탁식에서는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체제의 발전을 위해 ㈜길갈(이영팔 회장)이 1000만원을, ㈜씨엔코(조규백 회장)가 1000만원, 광주지구JC특우회(이종모 지구회장)가 5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이어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과 100개 기업 간 업무협약(MOU)이 이뤄졌다. 이날 협약을 맺은 기업은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의 가족기업으로 등록되며, '선취업·후학습 진흥 가족기업' 현판이 각 회사에 부착된다. 협약 내용은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협력 ▲특성화

고/마이스터고 졸업자에 대한 조선대학교 가족회사 선취업 연계 협력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정보교류 협력 ▲기타 관련 분야에 대한 상호 협의사항 운영 등이다.

협약식 이후 신주현 신산업융합학부장이 '기업의 직무향상과 성인학습지원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중경 미래사회융합대학장은 "이번 교류회는 지역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대학과 기업이 긴밀한 상생관계를 맺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은 지역의 평생학습 거점대학으로서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해 기업과 대학간 소통의 자리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영돈 총장은 "조선대학교 건학이념 중 '생산교육'의 취지에 맞는 교육이 미래사회융합대학의 선취업·후학습 체계"라면서 "다가오는 100세 시대에 조선대학교가 우리나라 평생교육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호남대 인사연 시민강좌 '그림책 리터러시' 주제

호남대학교 이강선(교양학부) 교수는 '그림책 리터러시: 왜 마음을 병 속에 넣었을까?'를 주제로 6월 9일 학운동 무뫼트동마을사랑채에서 시민강좌를 가졌다. 이번 강좌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책임연구원 운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강선 교수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작가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다시 경험하는 일이다"라는 말로 서두를 꺼낸 뒤 어른을 위한 영어그림책 'The Heart and The Bottle'을 소개하였다. 시민들은 영어 그림책 속 의미를 추적하고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 강좌가 열리는 마을사랑채는 강연 전 소독을 마쳤으며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고, 참석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강좌가 진행되었다.

이번 시민강좌는 16일까지 10회 걸쳐 각 분야의 리터러시를 주제로 개최된다.

대성여고, 코로나19 극복 '대성情나눔데이' 개최

대성여자고등학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성情나눔데이'를 10일 개최했다.

대성여고는 온라인 수업을 무사히 마치고 등교개학에 성실히 임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기원하기 위해 '대성情나눔데이'를 마련했다.

'情나눔데이'는 전 교직원 및 학생회가 중심이 돼 소정의 간식, 마스크, 코로나 예방 안전 수칙 등으로 구성된 선물을 학생들에게 나누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성여고 3학년 과학림 학생회장은 "등교가 연기되는 상황에 걱정이 많았을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다"며 "모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독도 교육 운영 다양화

역사강사 방문교육 지원 온라인 체험영상 제공 등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코로나19로 인한 독도전시관 휴관으로 단체관람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찾아가는 체험' 및 '온라인 체험'을 통해 독도전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독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0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따르면 기존 '친구야! 독도랑 놀자' 프로그램에서 '찾아가는, 친구야! 독도랑 놀자' 및 '온라인, 친구야! 독도랑 놀자' 프로그램으로 다각화해 독도 교육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친구야! 독도랑 놀자' 프로그램은 6월9일부터 7월24일까지 운영된다.

유치원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역사 강사들이 체험교구를 가지고 직접 유치원을 방문하게 된다.

'찾아가는, 친구야! 독도랑 놀자' 프로그램은 독도에 대한 실물자료와 설명을 통

해 아이들이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고, 독도에 대한 사랑과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인형극도 진행된다.

또 아이들이 동도와 서도의 특징을 익힐 수 있게 독도 모형 꾸미기 체험도 구성했다.

상반기 신청은 마감됐고, 지난 9일 이 프로그램을 첫 번째로 체험한 월산성모유치원을 포함해 총 27개 유치원이 참여하게 된다.

